



대구시간호사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으뜸상 황도경 아기

대구시간호사회(회장 박현숙)는 '제13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6월 27일 호텔인터블고대구 즐거움홀에서 열었다.

대구시가 공동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생후 4~6개월 된 모유수유아 111명이 참가했다.

으뜸상에 황도경(남·5개월) 아기가 선발돼 장학금 70만원을 받았다.

행복상 강동윤(남·6개월) 아기에 장학금 50만원, 대한간호협회장상 박아준(남·4개월) 아기에 금메달(7.5g)이 수여됐다. 사랑상 최소미(여·4개월) 아기를 비롯한 3명에게 장학금 30만원, 희망상 박지안(여·5개월) 아기를 비롯한 6명에게 장학금 20만원, 보람상 정세윤(여·4개월) 아기를 비롯한 15명에게 장학금 10만원이

최수정 기자 sjchoi@

경기도간호사회 휴식과 재충전 워크숍

경기도간호사회(회장 김인자)는 제1차 간호사 워크숍을 '휴식과 재충전' 주제로 6월 19~20일 홀리언스선마을에서 개최했다.



500명상 미만 중소병원과 보건소, 학교,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워크숍은 일과 삶에 지친 간호사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쉼을 선물하고,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향기명상, 리프래시 마사지, 원예치유, 숲 테라피, 건강한 식단 관리를 위한 영양 강의, 디지털 디

톡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한 간호사들은 "지친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면서 "이번 쉼을 새로운 시작이자 창조적인 일을 창출해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제2차 워크숍을 9월, 제3차 워크숍을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최수정 기자 sjchoi@

아동간호학회 '아동학대와 법의간호' 학술대회

한국아동간호학회(회장 안영미)는 하계학술대회를 '국과수의 아이들- 아동학대와 법의간호' 주제로 6월 22일에서 개최했다.

'영아급사중증군 사례와 법의학 고찰' '아동학대와 법의학' 주제발표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 및 최근 이슈와 실제 아동급사 사례를 공유했다.

'법의간호란 무엇인가' '피해대 아동들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아동학대 관련 연구내용 분석' 주제발표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의간호사의 역할을 알아보고, 아동학대 관련 연구현황을 공유했다.

회원들의 논문포스터 12편이 전

시됐으며, 우수 논문포스터 3편을 시상했다.

안영미 회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증진과 간호중재 개발을 위해 학문적 역량을 확대하고자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의간호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아동간호학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위해 홈페이지(www.childnursing.or.kr) 전면 개편을 6월 완료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노인간호학회 창립 20주년 국제학술대회

노인간호학회(회장 홍(손)귀령)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춘계국제학술대회를 '4차 산업혁명과 노인간호실무의 접목' 주제로 6월 29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노인간호에서의 첨단과학기술 활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낙상 위험 사정에서의 새로운 센서기술과 노인의 낙상예방' '인지기능감소와 치매예방을 위한 대화보호기술' '노인학: 하이테크와 하이터치' '고령자 대상 의사-의료인 간 ICT 활용 협진 모델개발 및 실증' 등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주혜진 기자 hjoo@



지역사회간호 7개 학회 연합학술대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회장 김희경)는 7개 학회 연합학술대회를 '문재인 케어와 지역사회기반 간호실무의 발전 방향' 주제로 6월 22일 개최했다.

다문화건강학회(회장 전미순), 한국가정간호학회(회장 성영희), 한국노년간호학회(회장 송연이), 한국방문간호관리학회(회장 강영실), 한국외국어간호사학회(회장 박진영), 한국직업간호간호학회(회장 김현숙)가 공동주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 변화와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만성질환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 방안'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정책과 간호실무의 방향' 기초강연과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각 학회별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프로그램을 열었다.

회원들의 간호연구논문포스터 32편이 전시됐으며, 우수 논문포스터 4편을 시상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

병원간호사회 연구결과 발표회

병원간호사회(회장 박영우)는 2017년에 실시한 연구의 결과 발표회를 6월 27일 개최했다.

발표회에서는 총 9편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간호사가 인식하는 간호관리자의 진정한 리더십과 간호성과와의 관계 연구 △중합병원 전문지원인력 실태조사 : 500명상 미만 △임상경력관리체계 모형에 따른 종합병원 간호사의 간호역량, 전문직활동 및 적용인식 △한국형 환자분류도구의 개정 연구 △입원환자의 낙상 실태 및 위험요인 조사 연구 : 국내 500명상 이상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근거기반 임상간호 실무지침의 수용개작 : 의료기관의 격리주의지침 △중소병원 간호사 이직소송을 위한 희망 근로조건 실태



조사 △의료기기 관련 욕창발생 현황 및 임상간호사의 의료기기 관련 욕창예방활동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수행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MFICU) 간호사 역할 정립.

연구결과는 병원간호사회가 올해 2월 발간 배포한 2017년도 사업보고서에 수록돼 있다.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www.khna.or.kr) 자료실에서도 볼 수 있다.

이진숙 기자 jilee@

가톨릭대 의대·간호대 '초기교사 기념석' 설치

가톨릭대 의과대학·간호대학은 가톨릭 의료교육의 역사적 태동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초기교육시설 사용건물임을 알리는 초기교사(校舍) 기념석을 명동성당내 문화관 2층 로비 정문과 서울대교구 건물 앞 두 곳에 설치했다.

가톨릭대 간호대학의 전신은 성요셉 간호고등기술학교로 1954년 개교했다.

1961년 가톨릭대 의학부 부속간호학교로 승격인가를 받고, 1962년 명동 성모병원 내 구주교관으로 이전했다. 1963년 대학과정의 간호학과로 승격되는 등의 초기 발전과정 동안 교사로 사용됐다. 이후 1982년 강남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 단지



내 신축교사가 완공되며 이전했다.

문정일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우리 대학은 전란 속에서 대학 설립의 싹을 틔우게 됐으며, 설립 초기의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면서 "이번 기념석 설치를 계기로 가톨릭대 의대·간호대 초기교사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 자랑스러운 역사와 긍지를 기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부모자녀건강학회 '여성암 자녀의 마음건강' 학술대회

부모자녀건강학회(회장 김 수)는 하계학술대회를 '여성암 자녀의 마음건강 돌보기' 주제로 6월 23일 개최했다.

'어머니의 암을 경험하는 자녀의 스트레스' 주제로 발표한 오현주 이대목동병원 수간호사는 "어머니의 암을 경험하는 자녀들은 두려움, 분노, 외로움 등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냈으며, 자녀들에 대한 간호중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암 자녀의 마음건강 돌보기' 주제로 발표한 박기정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는 "효과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녀의 성별 및 연령별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암 자녀를 위한 동화책 개발' 주제로 발표한 조주희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장은 암환자 자녀를 위한 동화책 '희망의 앞제1권'의 개발과정 및 해외 동화책 사례를 소개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흡연도 갑질' 금연광고

보건복지부는 '흡연도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옥외 금연광고를 대중교통 및 버스정류장에서 선보이고 있다.

이번 금연광고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갑질을 주제로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흡연상황에서 흡연자의 행동 또는 흡연이 주위사람에게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담배를 피우는 '연인 편', 부하직원에게 흡연을 강요하는 '직장동료 편', 비흡연자에게 담배를 배우게 하는 '군대 편' 등 총 3가지 시리드로 구성했다.

광고를 통해 사회 속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흡연 권유나 간접흡연이 주위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표현하고, 나아가 담배갑을 여는 행위 자체가 갑질이 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언어를 활용한 금연포스터도 온라인에 공개했다. 'SMOKING-SMOKILL' '졸담배-졸조상' '식후평(식사 후 담배를 피우는 행위)-인생평' '길빵?(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죽빵!(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행위)' 등 카운을 맞춰 금연메시지를 담았다.

주혜진 기자 hjoo@

현행차 292만명

10~20대 71% 차지

지난해 현행차는 292만여명이었으며, 10~20대가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세계현행차의 날을 맞아 주요 혈액 통계를 발표했다.

2017년 기준 전체 현행차 수는 292만8670명이었다. 이 중 남성이 72.8%(213만2241명), 여성이 27.2%(79만6429명)였다. 전체 현행차 수는 2016년 286만6330명에 비해 6만2340명 증가했다.

전체 현행차 중 10~20대가 71.0%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29세 39.8%, 16~19세 31.2%, 30~39세 14.1%, 40~49세 10.2%, 50~59세 3.9%, 60세 이상 0.7% 순이었다.

개인과 단체 현행차는 단체가 32.6%, 개인이 67.4%였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4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원 21.7%, 군인 15.7%, 기타 8.8%, 공무원 2.8% 순이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이직방지 교육지원

자신감 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생한 간호술기 숙달교육!

신/규/간/호/사

연간 10,000명 이상의 간호사 교육프로그램 진행 중!

서울·강원 02-2268-2632~3	부산·울산 051-442-3824~5
대구·경북 053-756-8487	인천·제주 032-441-2926
경기 031-302-9504	경남 055-281-5522
대전·충북·충남 042-825-0786	광주·전북·전남 062-222-5025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대표 전화 1522-1755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홈페이지 www.RNjob.or.kr

전국 권역센터 상시 실기실 오픈!

- 대상 : 실기 교육을 희망하는 간호사라면 누구나
- 내용 : 임상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간호술기 15가지
- 강사 : 센터 강사표준화 교육 이수자

*신규간호사실/교육신청한 혜택 : 6월부터 진행되는 "찾아가는 이직방지" 혹은 "조직문화개선교육" 우선 지원
*신청 대상기관 제외 : 상급종합병원, 500명상 이상 종합병원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